

ESG

기업 실천사례집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ESG 실천사례를
살펴봅시다.

2021.11 지속가능발전포털



삼성전자는 COVID-19 해소와 동시에 고객과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을 함께하기 위해 개발한 Samsung Global Goals 애플리케이션에 COVID-19 관련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실천 애플리케이션’으로 불리는 이 앱을 통해 2020년 4월부터 전 세계 사용자들은 유엔 개발계획(UNDP)이 제공하는 COVID-19 관련 뉴스, 예방활동 등의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COVID-19 사태 해결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직접 기부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대폭 증대하고 전세계 에너지 효율을 두 배 향상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선진적이고 보다 청정한 화석연료기술 등을 포섭하여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합니다.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갑니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을 위해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효율적 사용을 달성하고,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이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0](#)를 참조하세요.



현대자동차는 환경 부문에서 친환경차 확대, 지속적인 기술개발, 제품 연비 개선 그리고 사업장 및 공급망에 이르는 전 가치사슬에서의 탄소배출 감축 활동에 주력합니다. 이를 통해 UN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사회 부문에서는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국내외 사업장 임직원의 인권 및 안전보건, 그리고 공급망 ESG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와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이사회 산하 위원회인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ESG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개선 계획 및 이행 현황을 점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1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참조하세요.



SK는 윤리/투명경영, 고객중심경영, 인재경영, 동반성장, 환경경영, 지역사회공헌 6개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방향을 정의하고, 각각의 전략에 대한 조직을 구성하고 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윤리/투명경영 전략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윤리경영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신뢰를 구축합니다. 고객중심경영 전략은 고객의 니즈와 환경에 최적화된 IT/ICT 환경을 구축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고객가치를 제고합니다. 인재경영 전략은 'Happy Hompany'를 구축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임직원 행복을 창출합니다. 동반성장 전략은 협력회사와의 협업이나 지원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환경경영 전략은 에너지와 자원 사용량 절감 및 안전/보건/환경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사회 지원활동 등으로 지역사회공헌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SK는 S&P Dow Jones Indices / RobecoSAM,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한국표준협회(KSA),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World 9년 연속 편입 및 2년 연속 Industry Leader 선정 [복합기업군 1위],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통합 A+ 등급,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KRCA) 2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종합ESG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K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LG전자는 부정적 환경영향 Zero사업장, 미래세대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터, 포용적 사회를 위한 균형적 성장, 사회공헌, 지배구조를 ESG 경영 전략으로 운용합니다. 또한 Life's Good(Toward a Better Life for All)이라는 ESG 비전 하에 긍정적 지향점을 갖고 환경가치를 극대화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18년 LG전자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목표를 수립하였고,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주요 추진활동과 이행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제사회의 ESG 동향 및 트렌드를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와 더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기존 지향점을 개편하여 ESG 기반의 새로운 지향점을 수립하였습니다.

LG전자는 각 ESG 지향점별 정책을 제품 유해물질관리, 안전보건 경영방침, 환경경영방침 등의 환경정책을, 윤리규범, 행동강령, 협력회사 행동규범, 글로벌 노동 방침 등 ESG관련 정책을 구비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G의 ESG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롯데는 2015년 12월 회장의 공표 이후 3대 비재무적 성과 (ESG)를 사장단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2016년부터 환경, 공정거래, 사회 공헌, 동반성장, 인재 고용과 기업문화, 컴플라이언스, 안전 분야 등 비재무적 항목을 기업 환경에 적합하게 모델화하여 기업 인사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그룹 차원의 자원 선순환 방향성을 발표하면서 각 비즈니스 영역에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우선순위로 고려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방향성에 맞춰 롯데의 각 계열사들도 ESG 경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와 함께 걷는 롯데의 ESG 경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한화는 고객, 주주, 협력업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경영, 윤리/준법경영, 상생경영, 사회공헌 4개의 지속가능 경영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전략은 기업이 보유한 친환경 기술을 이용해 변화하는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는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주력합니다. 현장에서의 환경안전보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본사 환경안전 담당임원, 사업장 환경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전사 환경안전보건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2018년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출범하며 경영의 투명성 제고, 책임경영 기반 마련, 이사회 중심 경영 강화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계열사들은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그룹 출신 사외이사를 순차적으로 배제하여,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며 주주친화 경영을 시행중입니다. 협력업체와 지역사회가 가족이며 동반자라는 철학을 갖고 중소기업의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경영을 실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의 지속가능경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한진은 모든 경영활동에 상생경영, 나눔경영, 환경경영, 행복추구경영, 안전경영, 윤리/준법경영 6개의 지속가능 경영 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생경영 전략은 본업인 물류를 통한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로 지역 농가, 소상공인 등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목표의 전략입니다. 나눔경영 전략은 다양한 사회적 과제 해결에 참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노력합니다. 환경경영 전략은 환경 물류의 실천과 확산을 통해 회사의 물류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을 위한 전략을 실천합니다.

행복추구경영 전략은 인재양성, 더 좋은 직장 만들기, 복리후생, 채용안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경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안전보건 정책을 반영하여 안전보건 목표를 세우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활동, 실행·평가 및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안전보건활동을 통해서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물류파트너와 협력하여 사업별 특성에 맞춘 안전보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 실현을 목표로 작업자의 안전한 행동 유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진의 ESG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풀무원은 2017년부터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설치해 ESG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사외 이사로 구성된 ESG 위원회는 ESG 이슈를 파악하고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방향성을 점검,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풀무원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부문에 균형을 갖추고 ESG 경영을 실천합니다. 우선 풀무원은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발생량 관련 감축 목표를 설정해 매년 감축 결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표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태양열 온수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도 확대합니다. 또한 비영리 공익법인 ‘풀무원재단’을 설립해 3대 영역(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환경, 건강한 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결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주관한 ‘2020년 ESG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식품기업 중 최초로 4년 연속 ESG 통합 A+등급을 획득하고 ESG 부문 최우수기업상을 수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풀무원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모레퍼시픽은 지속가능경영 목표인 ‘2030 어 모어 뷰티풀 프로미스’를 발표했습니다. ‘고객 및 사회와의 동행’, ‘대자연과의 공존’이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한 다섯 가지 목표가 주요 내용입니다. 대자연과의 공존 세부 목표 중 하나인 ‘제품 포장재의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 및 플라스틱 포장재 100% 재활용, 재사용 또는 퇴비화 가능하도록 설계’를 실천하기 위해 중·소 협력사와 함께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실천합니다. 고객 및 사회와의 동행을 위해서 고객의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하고, 모두가 함께 하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핑크 리본 캠페인, 희망가게 등등 캠페인을 열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2019년도에 아모레퍼시픽은 ‘여성’, ‘자연생태’, ‘문화’ 관련 3대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물적나눔 부문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기업 중 유일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모레퍼시픽의 지속가능경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포스코는 ESG를 위해 기업시민의 방향성과 실천 원칙을 담은 기업시민헌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헌장은 사회와 조화, 동반성장, 공정투명, 환경보호, 안전, 다양성 포용 등 ESG 요소, UN SDGs 목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가치를 포괄합니다. 포스코는 기업시민헌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선순환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UN SDGs의 17번은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조합니다. COVID19 유행과 더불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추진합니다. 원료공급사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내의 모든 파트너와 함께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합니다.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해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비롯하여 환경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이행 현황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수준에서 논의하고, 기존의 기업시민위원회를 기업시민자문회의로 기능을 확대하는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OSCO의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20](#)을 참조하세요.

